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키프로스 우려에도 월말, 분기말 네고물량에 하락

- 전일 달러-원 환율은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고점 매도 물량과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했다.
- 장초반 예금에 과세하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달러화는 레벨을 높였다. 그러나 고점 매도 물량과 중공업체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롱스탑 장세가 전개됐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1,110원선을 뚫고 1,100원선 중반까지 하락폭을 키워 5.1원 하락한 1,105.7원에 장을 마감했다.
- 코스피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우려에도 낙폭과대 인식에 전일보다 6.03포인트 상승한 1,983.7로 마감했다.
-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를 합쳐 96억8천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1111.00

고가

1113.00

저가

1104.10

종가

1105.70

평균환율

1107.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1179.51

고가

1183.98

저가

1167.97

종가

1170.85

금일 전망

NDF환율 반영의 상승압력과 월말수급 하락압력 혼조로 1,100원대 등락예상

- 금일 달러-원 환율은 NDF 환율을 반영해 1,100원대에서 레벨을 높인 후 월말, 분기말 수급에 되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화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을 반영해 소폭 레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일 북한의 '제1호전투태세'관련 성명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졌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아직 달러 매수세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월말, 분기말이 겹치면서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달러화 롱스탑을 이끌어 상승을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 뉴욕증시는 美 소비자신뢰지수 및 신규주택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美 20대도시 주택가격지수 및 내구재주문 호조, 키프로스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0.00 ~ 111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47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65원상승

■ 美 다우지수 : 14559.65, +111.9p(+0.77%)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